

## 호남 투표 열풍 수도권으로 부나

전국 사전투표율 34.74%…전남 56.5%·전북 53.01%·광주 52.12%  
호남 표심 수도권에 영향 줄 듯…“영남·보수층 결집 자극할 것” 전망도

대선 ① D-1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호남 유권자  
의 절반 이상이 한 표를 행사하면서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4·6면〉

광주·전남·북의 사전투표율은 역대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34.74%로 지난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36.96%)보다 낮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측에서는 내란정권 심판론  
에 호남이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김  
문수 국민의힘 후보측에서는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부터 30일  
까지 이틀간 실시된 이번 사전투표의 최종 전국 투  
표율은 34.74%로 집계됐다.

전남 사전투표율은 56.5%로 지난 20대 대선의  
51.45%를 갈아치웠고, 전북 53.01%, 광주  
52.12%로 호남은 모두 50%이상 사전투표율을 기  
록해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전북 48.63%, 광주  
48.27%)을 넘겼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역대 사전투표율이 높  
았던 호남이 이번에도 사전투표율 1·3위(1위 전  
남, 2위 전북, 3위 광주)를 차지했고, 세종이  
41.16% 강원 36.6%, 제주 35.11%로 뒤를 이었  
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34.28%, 경기 32.88%,  
인천 32.79% 등 수도권 투표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  
았고, 충남(32.38%), 충북(33.72%), 대전  
(33.88%)도 투표율이 낮았다.

결국 본 투표 전까지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없다  
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호응한 이들  
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일 본투  
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또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후보 변동이 적을 것으  
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표표금지 전  
마지막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  
위 뒤의 1위를 유지했으나, 보수층 결집으로 김문  
수 후보와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여 본 투표에  
어떠한 작용을 할지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전투표 첫날인 29일은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  
를 기록했지만, 이튿날인 30일까지 누적결과 지난  
대선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30일 오후 2시 기  
준부터 지난 대선보다 낮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내란 종식  
과 정권 심판’론에 호응해 진보층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역대·지  
역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았다는 점  
은 이재명 후보로의 표심 결집이 이뤄졌다라는 분석  
이다. 또 호남 민심 결집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반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호남과 제주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지난 20대 대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낮았다는 점에서도다.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선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결이 다른 흐름이다.

또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선거 당일 영남과 수도권 보수층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서울(34.28%), 경기(32.88%), 인천  
(32.79%) 등 수도권 투표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  
았고, 충남(32.38%), 충북(33.72%), 대전  
(33.88%)도 투표율이 낮았다.

결국 본 투표 전까지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없다  
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호응한 이들  
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3일 본투  
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또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후보 변동이 적을 것으  
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표표금지 전  
마지막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  
위 뒤의 1위를 유지했으나, 보수층 결집으로 김문  
수 후보와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여 본 투표에  
어떠한 작용을 할지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10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 … 초여름 싱그러운 숲길을 달리다

제10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가 1일 오전 화순군과 광주 동구를 잇는 너릿재 옛길 구간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초록의 싱그러움을 느끼는 너릿재 옛길  
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관련기사 18·20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선 후보들 오늘 선거운동 마무리 유세

이재명,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빛의 혁명’ 호소  
김문수, 서울시청 광장서 ‘대한민국 중심’ 외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대선 투표일 하루 전인  
29일 서울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 운  
동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의도공원  
을 마지막 유세지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이끈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다.

국민과 계엄을 극복한 ‘빛의 혁명’을 강조하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

이 응원봉을 들고 모였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  
지막 유세 일정을 알리며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 장  
소가 여의도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민  
주주의의 가치가 가장 빛났던 그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함께 하길 소망한다”고 밝

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  
날레 유세를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대선 마지막  
유세를 같은 장소에서 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마지막 날 제주 유세를 시작으로 서울  
까지 북상하는 ‘종단 유세’를 하며 지지세를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에 “서울시청 앞은 대한  
민국과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유  
동 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넓  
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를 피날레 유세지  
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이 후보가 내세우는 ‘젊음’을,  
대구는 ‘보수의 적자’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개혁신당 관계자는 전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